

Color Lacquer and  
Process as Experiment  
Layered Patterns

색 옷칠과 층의 패턴  
실험으로서의 과정

작가는 본격적으로 공간 디자이너로 활동하기에 앞서, 디자이너와 수많은 현장 작업자 사이에서 소통을 책임지는 감리자로 경력을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역할을 넘어, 디자인의 의도와 그것을 실현하는 손길 사이의 거리를 좁히며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 경험을 통해 작가는 자연스럽게 양쪽의 처지를 이해하고, 이상과 현실이 만나는 접점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후 직접 디자인을 시작한 지 어느덧 7년. 수많은 프로젝트 속에서 자신만의 조형 언어와 디자인적 결을 탐구하며 감점을 쌓아왔으나, 클라이언트 의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동시대 실내 공간 디자인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에, 실제 창작에 할당되는 시간은 언제나 부족했고, 기능과 설치, 유지 보수의 제약 속에서 자유로움은 제한되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이들이 공간을 찾아와 경험하는 순간의 성취감은 분명 크다. 그러나 현실 속 공간은 의도와 다르게 변형되고, 사라지고, 파괴되기도 한다. 이는 많은 공간 디자이너들이 겪는 공통의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서울의 동시대 창작자들은 공간 디자인의 바깥을 향해 손을 뻗는다. 직접 가게를 운영하거나, 공예적 재료와 형식을 빌려 협업하며, 또 다른 창작의 가능성을 찾는다. 모든 것은 예술이 될 수 있으나, 빠른 템포와 외주 생산 방식에 기대는 공간 디자이너가 손수 미술이나 공예의 세계로 닿는 일은 쉽지 않다.

이는 예술이 디자인보다 우위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는 디자이너가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부단히 몸부림치는 긍정적 시도다. 작가 역시 과거의 프로젝트를 되짚고, 또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며 기성 가구를 직접 제작·판매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손으로 만들고 싶어도 효율성의 이유로 제작을 맡겨야 했던 현실은 늘 창작자로서의 결핍을 남겼다.

Before officially beginning a career as a spatial designer, the artist first worked as a supervising director—a role that bridged designers and numerous on-site workers. More than a functional position, it was a crucial responsibility that narrowed the distance between intention and execution, raising the level of completion. Through this experience, the artist naturally came to understand both perspectives and to search for the junction where ideals meet reality.

Sev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artist began designing independently. Through countless projects, a personal formal language and design sensibility were cultivated. Yet, client-driven commissions imposed limitations. Contemporary interior design projects move at a rapid tempo, leaving little room for prolonged creative exploration, while issues of installation, function, and maintenance restrict freedom further.

There is undeniable fulfillment in resolving clients' needs and in seeing many people experience those works. Yet, spaces in reality are often altered, dismantled, or destroyed, diverging from their original intentions. This is a challenge faced by many interior designers. Perhaps for this reason, contemporary creators in Seoul frequently reach beyond the boundaries of spatial design—running shops, borrowing forms and materials from craft, or collaborating with other practitioners. While everything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rt, the accelerated pace and outsourcing typical of the field make it difficult for spatial designers to engage directly in the tactile realms of art or craft.

This does not suggest that art or craft stands above design. Rather, such gestures are positive struggles—designers striving to carve out their own paths. The artist, too, has revisited past projects, imagined new ones, and even attempted to design and sell ready-made furniture independently. Yet the reality of outsourcing fabrication, however efficient, left behind a persistent sense of deficiency as a maker.

그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작가는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에서 직접 손을 움직이는 실험적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나아가 옷칠이라는 기다림의 기법을 자신이 디자인한 조형물 위에 입혔을 때, 그 감각은 남달랐다. 이는 자연스러운 귀결이자 확장의 과정이었다.

이번에 선보이는 옷칠 작업은 의뢰인이 존재하는 프로젝트의 견고함과 다른, 다소 아슬아슬한 구조를 품고 있다.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나 일부러 연약하게 세워진 형태, 유연하게 올려진 옷칠은 긴 시간의 기다림 끝에 단순한 장식을 넘어 견고한 면으로 완성되었다. 더 나아가 개인적인 조형 실험을 통해, 작가는 자신의 과정과 작업을 더욱 솔직하게 마주했다.

결국 비전공자로서 독립적으로 생존해야 했던 작가는, 업계의 빠른 리듬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겨왔다. 새롭게 터득한 기법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익숙한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는 일은, 자유로운 사고와 확장된 시선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힘이 될 것이다.

송태영

To address this, the artist pursued hands-on experimentation at Paju Typography Institute. Later, applying the patient medium of urushi lacquer to self-designed objects offered an exhilaration unlike any before. It was a natural extension and evolution.

The works presented here embody a fragile balance, distinct from the solid products of client-based projects. Though constructed from strong metal, their forms are intentionally precarious; though coated with soft layers of urushi, they have, through long periods of labor and waiting, transformed into durable surfaces—more than mere decoration. Alongside, personal sculptural experiments confront the artist's process and practice with honesty.

Ultimately, as a non-major who had to survive independently, the artist refused to lose focus even within the fast tempo of the industry, choosing instead to carry ideas into execution. Whether this newly acquired technique will prove advantageous or not remains unknown. But what is certain is that stepping outside familiar frameworks and embracing new attempts will provide the artist with an essential means of expanding thought and cultivating freedom.

Song Taeyoung

이번 전시는 금속 가구 위에 색 옷칠을 매개로 진행한 실험적 과정을 다룬다. 단순히 표면을 덮는 장식적 수단이 아니라, 겹겹이 쌓인 옷칠을 연마하여 드러내는 마연(磨研)\* 기법을 통해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층의 기하학적 패턴을 탐구하고자 했다.

주재료인 옷칠은 본질적으로 매우 유기적인 재료다.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만나야만 단단히 굳어 건조가 시작된다. 이처럼 환경 조건과 재료의 특성은 과정 전체에 깊이 개입하며, 최종 형상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개입성이라는 복잡한 우연성이 내가 옷칠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작업 과정은 단순히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집요하다. 칠하기, 건조, 연마의 순환이 끝없이 반복된다. 칠이 두껍게 묻치거나 고르게 퍼지지 않으면 걸마름 현상이 생기고, 이는 곧바로 형태 변형으로 이어진다. 표면이 안정적으로 다음 단계를 받아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기본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표면이 단단하게 평을 유지하고 안정화가 이뤄져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그 이후부터가 오히려 본격적인 실험의 시작이다.

색 옷칠은 시간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칠을 올린 뒤 곧바로 건조장에 들어갈 수 없으며, 하루 정도는 먼지와 빛이 차단된 공간에서 1차 건조 과정을 거친 후에야 습도가 높은 건조장에 들어간다.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칠과 건조, 연마가 차곡차곡 쌓인다. 연마는 거친 사포에서 시작해 점차 고운 사포로 올라가며, 이전의 흔적을 지우는 동시에 새로운 흔적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숨겨진 아래층이 드러나며, 의도와 우연이 맞물려 형상이 형성된다. 사포의 결, 손의 압력, 밀어내는 방향과 속도 같은 미세한 요소들까지 결과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 주로 돌, 보석, 유리 등 단단한  
고체를 굽고 문질러 표면을 반질반질  
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

This exhibition addresses an experimental process conducted on metal furniture using color lacquer. Rather than employing lacquer simply as a decorative finish to cover surfaces, the work explores the polishing technique of Mayeon(磨研)<sup>°</sup>, in which multiple layers of lacquer are ground down to reveal geometric patterns that emerge by chance.

The main material, lacquer, is inherently organic. It only begins to harden and cure under the right temperature and humidity.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material properties are deeply involved in the entire process, and the final form remains unpredictable. This uncertainty and intervention—this complex element of chance—was a crucial reason I chose lacquer as the primary medium.

The working process is deceptively simple yet persistently demanding. The cycle of coating, drying, and polishing is repeated endlessly. If the lacquer is applied too thickly or unevenly, surface cracking occurs, which directly leads to deformation. Until the surface is stable enough to accept the next layer, the basic steps must be repeated. Only when the surface achieves firmness and equilibrium can the process move forward, and from that point the experiment truly begins.

Color lacquer unfolds in close relation to time. After coating, the work cannot be placed directly in the drying chamber. It must first rest for about a day in a controlled environment shielded from dust and light. Only then is it moved into a high-humidity chamber to cure fully. This process is repeated multiple times, layering cycles of coating, drying, and polishing. Polishing itself is also gradual—beginning with coarse sandpaper and moving to finer grades, erasing previous traces while creating new ones. Hidden layers begin to surface, and form arises through the intersection of intention and chance. Every subtle factor—grain of the sandpaper, pressure of the hand, direction and speed of movement—directly shapes the outcome.

<sup>°</sup> A polishing method that smooths  
and refines hard surfaces such as  
stone, glass, or metal.

색 옷칠의 발현은 환경과 시간에 크게 좌우된다. 옷은 공기와 닿는 순간부터 습기와 반응하며 색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건조 후에는 처음 올린 색과 전혀 다른 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모든 과정을 마무리한 뒤에는 ‘색을 피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햇빛의 자외선이 옷칠 성분과 반응해 투명도를 높이고, 안료의 색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총마다 다른 두께는 마연을 거치며 깊이감 있는 색조를 만들고, 이는 현대적 재료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시각 효과를 보여준다.

이 작업은 또한 현대적 재료인 금속 가구와 전통적 기법인 옷칠의 결합을 다룬다. 금속의 무기성과 옷칠의 유기성이 만나는 과정에서 상반된 속성들이 충돌하며 새로운 균형을 형성한다. 날카로움과 부드러움, 직선과 곡선, 건조함과 습함 같은 상반된 조건이 한 작업 안에서 공존하며, 그 긴장 속에서 새로운 형상과 감각이 만들어진다.

나에게 이 작업은 단순히 가구 제작을 넘어선다. 금속이라는 구조적 토대와 옷칠이라는 유기적 재료가 만나는 순간, 가구는 기능적 역할을 넘어 조형적 오브제로 확장된다. 이는 공간 디자인적 사고와 조형적 탐구가 교차하는 지점이며, 디자인·예술 공예의 경계를 오가는 실험이기도 하다. 이 실험 자체가 작업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

완성된 결과물은 표면에 드러나는 형상만이 아니라, 그 안에 축적된 과정과 시간, 환경과 재료의 개입이 함께 담겨 있다. 관람자는 단순히 하나의 패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쌓인 과정과 시간의 층위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 쉽게 얻을 수 없는 깊고 진한 우연의 과정과도 마주하게 된다.

결국 이번 전시는 시간과 환경, 재료의 특성, 그리고 우연성이 모여 하나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한 실험의 결과물이다. 이는 단순한 완결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재료와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의 출발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옷칠은 빛을 받으며 변화를 계속한다. 전시는 끝없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 놓여 있다.

The manifestation of color lacquer is largely determined by environment and time. From the moment lacquer meets air, it reacts with humidity and its color begins to shift. After curing, the result often appears in tones quite different from the initial application. Once all stages are complete, the work undergoes a process known as “bringing out the color.” Exposure to sunlight and ultraviolet rays reacts with the components of lacquer, increasing transparency and intensifying pigments. Variations in layer thickness revealed through Mayeon polishing produce depth and richness of tone that modern industrial materials cannot easily replicate.

This work also investigates the combination of modern material—metal furniture—and the traditional technique of lacquerware. In this convergence, inorganic and organic qualities collide to form new balance. Sharpness and softness, line and curve, dryness and moisture—contrasting conditions coexist within a single piece, and from this tension, new forms and sensibilities arise.

For me, this practice goes beyond simple furniture-making. When the structural base of metal meets the organic medium of lacquer, furniture extends beyond functionality to become a sculptural object. It is a point where spatial design thinking intersects with formal inquiry, and an experiment that traverses the boundaries of design, art, and craft. The experiment itself holds value as a work. The completed pieces reveal not only the visible forms on the surface, but also the accumulated layers of process and time, the traces of environment, and the interventions of material. Viewers encounter not just a single pattern, but the stratified processes and durations embedded within it—an encounter with deep, irreproducible moments of chance.

Ultimately, this exhibition presents the results of observing and recording how time, environment, material properties, and chance converge into form. It is not a conclusion but a point of departure for ongoing investigations into material and process. Even now, the lacquer continues to change as it meets light. The exhibition itself remains within an unfolding process.

Process as Experiment - Chair  
2025  
Simone cho  
330 x 340 x 790 mm  
Zinc, Multiple Layers of Color Lacquer  
Polished (Mayeon technique)



Process as Experiment - Table  
2025  
Simone cho  
800 × 475 × 740 mm  
Zinc, Multiple Layers of Color Lacquer  
Polished (Mayeon technique)





Process as Experiment - Cabinet  
2025  
Simone cho  
205 × 300 × 1000 mm  
Zinc, Multiple Layers of Color Lacquer  
Polished (Mayeon techni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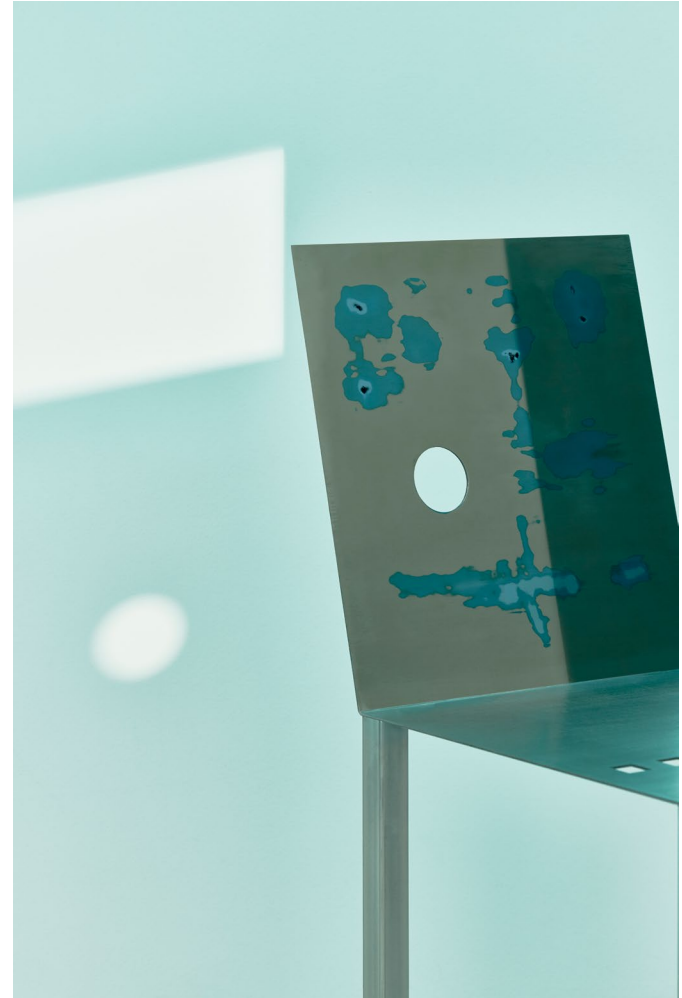
Process as Experiment - Shelf  
2025  
Simone cho  
465 × 300 × 800 mm  
Zinc, Multiple Layers of Color Lacquer  
Polished (Mayeon technique)

Process as Experiment - Object  
2025  
Simone cho  
200 × 200 × 1515 mm  
Zinc, Multiple Layers of Color Lacquer  
Polished (Mayeon technique)













작가 조남인은 서울을 중심으로 실내건축을 기반으로 한 공간 디자인을 전개하며,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가구와 오브제 작업으로 활동을 확장하고 있다. 2024년 파주 출판도시에 위치한 파주 타이포그래피배곳(PaTI) 가을 학기 진수 교육과정을 수료하며, 시각예술 영역의 설치 작업으로 탐구의 범위를 넓혔다.

기존의 작업과는 다른 표현 방식을 실험하며, 매체가 지닌 고유한 경계와 복잡한 구조를 허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재료의 본질을 우회하는 접근을 통해 가능성을 탐구하며, 모든 작업에서 단순함과 간결함의 가치를 추구한다. 이러한 탐구를 통해 기성의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각을 향한 창작을 이어가고자 한다.

Simone Cho is a Seoul-based designer whose work spans spatial design grounded in interior architecture, as well as the creation of furniture and objects shaped by project-specific contexts. In 2024, Simone Cho completed the Jinsoo curriculum at the Paju Typography Institute (PaTI) in Paju Book City, expanding the practice into installation works within the field of visual arts.

Exploring modes of expression distinct from earlier works, Simone Cho seeks to dismantle the rigid boundaries and complex structures embedded in each medium. By approaching materials obliquely, Simone Cho investigates their inherent possibilities while pursuing simplicity and clarity as fundamental values. Through this ongoing inquiry, Simone Cho aims to move beyond conventional logics of production and create toward new sensibilities.

Simonecho  
조남인

simonecho.com  
contact@simonecho.com  
@simone\_cho

실험으로서의 과정  
- 색 옷칠과 층의 패턴

2025.9.10 – 9.14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27 201호  
Simone Cho Office

기획	Simone Cho
작가	Simone Cho
전시 서문	송태영
디자인	구와영(이혁구,김영주)
사진	Poles
인쇄	프로카피

Process as Experiment  
- Color Lacquer and Layered Patterns

2025.9.10 – 9.14

Curation	Simone Cho
Artist	Simone Cho
Exhibition Introduction	Song Taeyoung
Design	Guwayoung(Hyukgu,Youngjoo)
Photography	Poles
Print	Procopy